

다양한 가롯 유다의 탄생
: 타자화, 악마화 그리고 탈역사화된 가롯 유다에 대한 상상적 기술(想像的記述)

강상우
(고구려대 사회복지학 겸임교수)

I 들어가는 말

기독교 안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한 본 연구자로서는 오직 하나의 가롯 유다, 즉 성경이 사복음서를 통해 말해주는 유다, 사도신경 등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가롯 유다만을 역사적인 사실로 기억할 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것이 내가 믿는 가롯 유다에 대한 역사적 지식의 전부다. 그런데 주위에서 심심찮게 성경과 다른 가롯 유다를 발견할 수 있었다. 최근에 마녀사냥에 관한 글을 쓰면서 중세와 관련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살펴보았는데 가롯 유다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가롯 유다하고는 전혀 딴 판(板)인 유다 말이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유다와 전혀 다른 유다를 일부 집단에서 역사적 사실처럼 믿었다(?)는 것에 더 충격이었다. 아니 사실이 아닌지 알면서도 사실처럼 믿으려고 했는지도 모른다. 전혀 현실처럼 보이지 않는 소설(小說) 수준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이다. 당시 마녀사냥에서 마녀에 대한 이해와도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다. 왜 다양한 가롯 유다가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것은 양시앵레짐(ancient regime, 舊體制)에서 프랑스혁명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때에 사실과 다른 다양한 마리앙트아네트(Joséphe Jeanne Marie Antoinette)의 존재와도 비슷한 맥락이며 또 십자군 전쟁 당시 사실과 다른 이슬람교의 예언자 무함마드(Muhammad, مُحَمَّد)가 존재하는 것과도 매우 유사하였다. 다만 크나큰 차이가 있다면 마리앙트아네트와 예언자 무함마드에 대한 것들은 일시적으로 그 당시자들에게 한정되어 끝났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서 가롯 유다에 대한 이해는 한 사람에게 대한 저주와 비웃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향한 저주와 비웃음[反猶太主義, Antisemitism]으로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절경(絶頂)이 독일의 히틀러 치하의 나치에서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홀로코스트(holocaust, 유대인들은 이를 Shoah Shoah)로 연결되어졌다는 점이다.(나치의 홀로코스트의 경우, 최호근, 2015: 145-148, “유대인 학살의 배경과 동기” 참조). 본고는 왜 이처럼 끔직한 역사적 대학살이 일어날 정도로 다양한 가롯 유다가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것도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가롯 유다들이 존재했는가에 대해서 말이다. 이를 위해서 성경 안에서의 가롯 유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이는 다양한 가롯 유다가 사실과 다름을 말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다양한 유다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를 타자화(他者化)와 악마화(惡魔化), 그리고 탈역사화(脫歷史化)의 과정이라는 것을 통해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본 연구자의 주장은 부제목에서 밝힌 것처럼 개인의 ‘상상적 기술(想像的記述)로, 미천(微賤)한 지식(資料)과 사고에 근거한 일종의 극히 개인적인 생각(doxa, α, opinion)이라는 점을 밝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혹시나 이렇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유다에 대한 계보학(系譜學, genealogy)을 알고 있거나 초기 기독교의 역사나 교리에 대한 전문가라면 더 아카데미한 접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확실한 것은 본 연구자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며 그렇기 때문에 본고는 신천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힌다.

II 다양한 가롯 유다의 탄생

1 역사적 사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롯 유다(Iscariot Judas in the Bible)

가롯 유다에 관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는가. 성경에서 만날 수 있는 가롯 유다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말해주고 있는 유다 가롯이다. 사복음서를 대표해서 <마태복음>에 나온 유다의 기록과 의사 누가(Luke)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온 유다가 그것이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저자 자신들의 관점에서 가롯 유다를 묘사한다. 이러한 이유로 성경 비평가들은 통일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아니면 그 정도의 주장은 아니더라도 작가 토스카 리(Tosca Lee)처럼 다음과 같은 매우 합리적인 궁금증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가롯 유다]의 죽음에 대한 기록 자체가 수수께끼다. 그는 전통적인 묘사대로 밧줄로 목을 매달아 죽었을까? 아니면 성경 시대에 줄곧 시행되던 처형법에 따라 십자가나 기둥에 ‘매달렸’을까? 그러면 그가 땅에 거꾸러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쏟아져 나왔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어떻게 된 것일까? 두 기록은 서로 상반되는 것일까, 보완하는 기록일까?(Lee, 2014: 443-444, “Tosca Lee, ‘저자 후기’”. 440-446 참조).

하지만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그러한 생각[疑心이나 궁금증]도 사실 들지 않는다. 왜냐하면 매우 어리석고 맹목적(盲目的)인 것[믿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에 나타난 가롯 유다에 대한 성경 저자들의 다양한 진술은 저자 각자의 관점에서의 기술이며, 리처드 A. 버릿지(Richard A. Burridge)가 예수님에 대한 네 복음서의 저자들의 각기 다른 진술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만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가롯 유다에 대한 각기 다른 진술을 어떻게 이해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이는 이 책을 읽기 전부터 본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지닌 관점이기도 하다). 리처드 A. 버릿지(Richard A. Burridge)는 자신의 책, 『복음서와 만나다: 예수를 그린 네 편의 초상화』(Four Gospels One Jesus?: A Symbolic Reading)에서 네 개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다음과 같이 바라보아야[理解해야만] 한다고 적고 있다. 그는 먼저 피해야 할 것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한 그림 위에 다른 그림을 포개어 보거나 조화롭게 한다는 이유로 여러 그림을 하나로 만들거나 그림들의 최소공통부모를 찾아 환원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Burridge, 2017: 25). 버릿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네 개의 복음서의 진술] 네 개의 초상은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 이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좋은 길은 초상들이 걸린 복도를 거닐며 각 초상을 찬찬히 살피는 것이다”(Burridge, 2017: 26). 성경은 가롯 유다에 대해서 크게 피터 스탠포드(Peter Stanford)가 언급한 ‘유다 3부작(?)인 ‘은 30 냥으로 예수를 팔았었고, 예수에게 [배신의] 입맞춤을 했었고, 그리고 유다는 자살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을 뿐이다(Stanford, 2016 참조).

2 他者化(Othering): <유다복음>의 존재, 구별하기와 경계 짓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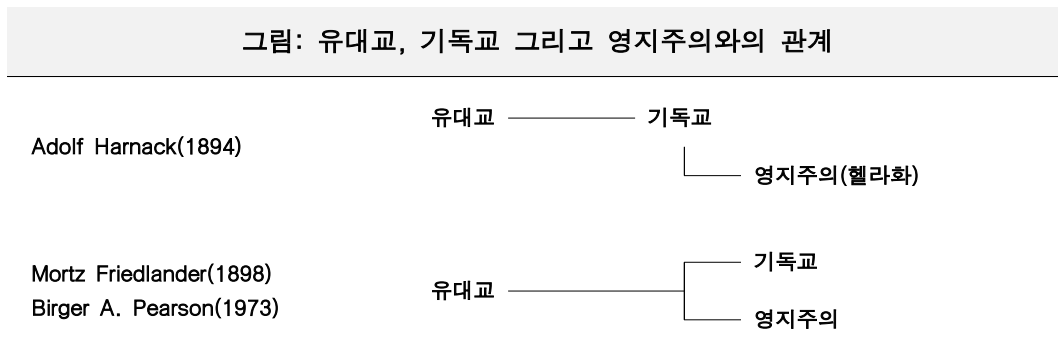
분명 과거 어느 책에선가 보았던 내용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내 스스로 생각해 냈다면 내 자신은 분명 생각보다 더 거시기한 존재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물론 현실은 다르지만 말이다. “필기도구의 역사는 지우개의 역사와 거의 함께 간다.” “기록의 역사는 위조의 역사와 거의 동행한다.” 이런 정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다.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준 가롯 유다의 정보와 다른 가롯 유다에 관한 정보가 나타났던 것이다.

1) 영지주의의 출현

기독교 정통(전통과 정통을 포함한, 본 연구자는 傳統[tradition]과 正統[Orthodoxy]의 합성어인 傳正統, trad-orthodoxy)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전하는 영지주의가 출현한 것이다. 영지주의는 초대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복음에 대한 이해를 전파하였다. 이 영지주의의 뿌리를 두고 과거 한참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었던 것 같다.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는 영지주의에 대한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난 세기에 한 축에는 영지주의, 다른 한 축에는 기독교 및 유대교를 놓고 두 축의 연관성에 관한 진지한 논쟁이 있었다. 19세기 후반 하르낙(Harnack, 1894)은 영지주의를 극도로 헬라화된 기독교의 한 브랜드이자 기독교 이단으로 분류하는 데 만족했다. 하지만 곧 이어 얼마 후 많은 학자들이[e.g. Friedlander, 1898] 영지주의가 유대인 뿌리에서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며 기독교와 영지주의를 1세기의 유대교라는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평행한 두 지류’라고 보았다. 나그 함마디에서 발견된 문서의 내용이 대부분 기독교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본질적으로 기독교의 내부에서 경쟁하는 한 지파라는 시각보다는 기독교와 영지주의 두 운동이 평행선상에 있었다는 관점이 오늘날에는 더 큰 지지를 받는 듯하다. 버거 피어슨은 프리드랜더의 관점에 공감하며 이 입장을 가장 강경하게 피력했다. “영지주의는 그 기원상 ‘기독교’의 이단이 아니다. 오히려 … 영지주의는 사실 ‘유대의’ 이단이다.”[Pearson, 1973: 35](Stark, 2016: 213).

위의 내용을 참고해서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다.



자료: Stark, 2016: 213 내용 그림으로 구성

아돌프 하르낙(Adolf Harnack)에 의하던 프리드랜더와 피어슨에 의하던 간에 한 가지의 공통점은 영지주의는 정통기독교와는 다르다는 사실이다.

2) 영지주의 문서인 <유다복음> 출현

“말은 날아가나 글을 남는다”(verba volant, scripta manent).

앞에서 기술하였던 것처럼 기독교 정통이 말하는 가룟 유다하고 전혀 다른 인물에 대한 문서가 나타난 것이 다. 그것도 구전(口傳)이 아닌 문서화(文書化)된 형태로 그것이 바로 <유다복음>이라는 영지주의의 문서다. 고대 이집트어인 콥트어로 쓰여진 <유다복음>은 이레니우스(180년 경에 언급)에 의하면 가인파 영지주의자들의 작품이라고 한다.(김동수, 2007: 111; 강성모, 2006: 42-43; Ehrmann, in Krosney, 2006: 2-3). 중세의 마녀사냥에 일조한 것 중의 하나가 인쇄술의 발달이었는데, 비록 인쇄술은 아니지만 문서화된 형태로 돌아다니는 <유다복

음)에 대해서 정통기독교 공동체에 속하든 그렇지 않는 세인이든 간에 얼마나 귀 쫓긋하게 하는 역할을 유다복음이 당시에 하였는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물론 당시 사람들의 문맹률이 매우 높다 하더라도 구전(口傳)에 의한 것과 눈으로 문서라는 형태로 직접 보는 것은 그 충격에 있어서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글자를 모르니까 눈에 더 집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문서 속의 내용은 전혀 모를 수 있지만 “아, 이 문서가 그것이구나.” 심이어 자신들의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용은 모르면서도] 내가 직접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주장하였을 것이다. 들은 것이 아니라 직접 본 것이라고 말이다.

3) 구별하기‘境界’짓기의 필요성

〈유다복음〉은 영지주의 문서로 기독교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내용면에서 전혀 다른 가롯 유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만약 그것을 허용할 경우 기독교의 근본인 성경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면 전혀 다른 기독교(other christianities)가 기독교의 행세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가롯 유다와 〈유다복음〉의 유다를 구별할 필요하였던 것이다. 그것이 바로 타자화(극정적 의미의 타자화). 일종의 경계를 짓는 것이다.

(1) 전혀 다른 가롯 유다(other Judas)

영지주의 문서인 〈유다복음〉에 나온 유다는 정통기독교에서 말하는 ‘가롯 유다’하고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다복음〉에 나오는 가롯 유다는 배신자 유다가 아니다. 도리어 예수의 복음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잘 이해한 제자로 예수의 명령을 따라 예수의 사역을 완성하도록 도와준 신실한 제자라는 것이다. 예수를 둘러싸고 있는 육신의 옷을 없애서 영적 구원을 이루도록 도운 충직(忠直)한 제자라는 것이다.

『유다복음』을 이해하는 열쇠는 이 그노시스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다. 『유다복음』에 따르면 예수는 육체를 지닌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 영적인 예수는 죽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부활할 필요도 없다. 영적인 존재인 예수는 유다에게 인간의 육체에 감금되어 있는 자신의 영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유다는 예수의 이 요구를 따랐을 뿐이다 『유다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배신의 상징이었던 유다를 예수의 12제자 중 유일하게 예수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을 이해한 제자로 묘사한다. 유다에 대한 평가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은 예수에 대한 묘사이다(배철현, 2015: 157).

(2)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문서(Other Papers)

당시 정통 기독교인들은 영지주의 문서인 〈유다복음〉에 나오는 유다와 정통기독교의 텍스트에 나온 가롯 유다 간(間)의 구별하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일종의 경계 짓기를 통한 타자화의 과정을 가진 것이다. 이는 그 당시 교회로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전혀 다른 텍스트의 존재는 성경의 진정성을 의심받게 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와 교회의 권위를 본질적으로 허무는 도구로 충분히 사용되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경계 짓기’는 협의적(狹意的)이며 외형적 의미로는 “〈유다복음〉의 유다≠정통 기독교의 유다”를 의미하지만 광의적이고 더 본질적으로는 “〈유다복음〉≠정통 기독교의 가르침 아님[正經이 아님, 正統基督敎의 가르침이 아님], 故로 멀리하여야함”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2006년 6월 당시 〈유다복음〉을 부활절을 맞는 성금요일에 텍스트를 공개했을 때에도 앨리스터 E. 맥그라스(Alister E. McGrath)는 호들갑을 떠는 대중매체들의 그러한 행태(行態) 속에 들어있는 진의(真意)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당시 그들의 진의는 바로 성경의 진정성을 무너뜨려야만 교회의 권위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맥그라스는 그들의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지적했던 것이다.

교회의 권위를 타파하려면 권위의 바탕이 되는 텍스트의 진정성을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이다. 2006년 『유다복음』을 둘러싸고 대중매체가 호들갑을 떠는 것은 이런 흐름을 반영한다. 대중매체는 앞 다투어 “바로 여기에 전통적인 기독교 복음서들에 대한 대안이 있는데, 초대교회가 교회의 권위를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를 억압했다.”고 보도했다. … 대표적인 영국 신문은 『유다복음』을 “이천 년에 걸친 기독교의 가르침”에 위협을 제기한 “온 시대를 통틀어 최대의 고고학적 발견”이라 선언했을 정도이다.(McGrath, 2011: 21, 강조는 본 연구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자. <유다복음>은 당시 유행하던 영지주의 문서로 기독교와 본질적으로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다. <유다복음>에 나오는 유다는 정통적 기독교의 가르침에 의한 가롯 유다와 전혀 달랐다. 그리고 <유다복음>의 가르침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본질적으로 전혀 달랐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유다복음>과 그 속에 표현된 가롯 유다는 정통 기독교의 가르침과 전혀 다른 인물임을 선포[指摘]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타자화(他者化), 구별[分別]하기, 경계(境界) 짓기의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오늘날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악의(惡意)와는 관계없이 정체성 유지를 위한 구별의 필요성에 의한 자연스러운 타자화(他者化)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3 惡魔化(demonizing): 잘못된 성경해석-해석의 독점, 환원주의적 이해, 정치적 이해관계

타자화하기는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자신의 본질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잘못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여기서의 타자화는 단순히 ‘구별하기, 분별[구분]하기, 경계 짓기’의 개념으로 정체성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조성택 교수도 정체성이 그 자체로 배타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하였다. 다음의 이에 대한 조성택 교수의 기술이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정체성, 예를 들면 종교적 정체성, 문화적 정체성, 정치적 정체성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도 옳고 나도 옳다고 하는 상대주의적인 관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지요. 역사적인 과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정체성은 그 자체로 배타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 배타성을 자기 정체성으로서, 문화 정체성으로서, 그리고 자기 확신으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공격하지 않음’으로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시민사회 단위의 합의와 조정,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런 점에서 배타주의를 두 측면에서 다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런 맥락에서 신앙은 배타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신앙의 배타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식의 방식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합니다(조성택, in 김근수·김진호·조성택·박병기·성해일·정경일, 2016: 67).

1) 타자화를 넘어서 악마화

문제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해 단순히 ‘구별하기’나 ‘경계 짓기’로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타자화를 넘어서 이제는 악마화하기에 이른다. 이 악마화의 과정은 성경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지만, 현실 속에서 이러한 잘못이 경험으로 일부 나타나게 되었다는 점이다. 거의 대부분 주장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많은 생각을 다시 하게끔 하는 김진호 선생은 악마화의 과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콘스탄티누스적 전환 이후의 그리스도교는 ‘왜’라고 묻는 대신 ‘누구’인지를 묻는다. 중요한 것이 이 ‘누구’에 대한 물음에는 자신들이 체감하는 역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다만 언제나 ‘적그리스도’(anti-Christ)를 등장시키며 각 시대마다 하수인을 만들어낸다(김진호, in 김근수·김진호·조성택·박병기·성해영·정경일, 2016: 50-51).

그렇다면 가롯 유다가 어떻게 악마화될 수 있었을까? 최악의 경우가 가롯 유다 개인에 대한 평가로 ‘가롯 유다=신을 배신한 자’ 정도로 이해되어야 할 것인데 어떻게 ‘유다=유대인’이라는 도식으로 악마화가 되었을까? <사도신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는 고백으로 끝나지 가롯 유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롯 유다가 악마화가 된 것일까? 개인적인 경험과 사회적 현상으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영지주의 도전이 정통 교회와 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그리 간단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강한 도전에 대한 ‘강한 극단적 반작용[極端的反應]’으로서 가롯 유다에 대한 악마화가 진행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 본다.[“탐욕스러운 유다(Judas of greed)=유대인(Jew)”로 이해되어졌고, “예수님을 살해한 유다(Judas Murderer)=유대인(Jew)”, “배신자 유다”(Judas betrayer)라는 도식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오늘날 인터넷의 논란(키보드워리어[컴퓨터사판전 새라고 불리워지는 이들에서 행해지는]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일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맘에 안 들면 당장 나온 것 중의 하나가 “그의 고향이 어딘가?” 서울 사람이다거나 자신들이 생각할 때 흠잡을 때 없는 곳이 그의 고향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그 다음에 묻는 질문도 지역[고향]과 관련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부모는 어디 출신인가?”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평가가 쉽게 지역이나 다른 그 무엇인가로 번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마 유다에 대한 악마화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었을 것이다. 당시 초기 교회가 영지주의는 물론 유대교와의 대립 관계[競爭關係]에 있었고 또 초기 교부들과 같은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라는 점에서 유대인에 대한 교부들의 적의(敵意)는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구별 짓기는 逆說的이기도 초기 기독교 당시 회당에서의 기독교 인들은 소수에 불과했으며 회당의 다수의 유대인에 의해서 구별 짓기가 시도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당시 유대인의 회당의 <기도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 인터넷 인신 공격적 상호비방(人身攻擊的相互誹謗)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호비방은 극단적인 언어표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일상적인 육두문자(肉頭文字)는 저리로 가라다. 생전 듣지 못한 말[단어]를 그것도 줄여서 말하기 시작한다. 욕설인 것은 같은데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그 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정도로 줄여서 쓴다. 비방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검색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 비방[辱詆]은 물론 성적 냄새가 나는 극단적인 표현인 경우가 매우 많다.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흔한 매우 부정적인 표현을 빌리자면(타인에게 하면 절대로 안 되니까? 스스로에게 인터넷 상의 비하적인 표현을 적용시키면) 해남 출신인 본 연구자를 인터넷 상의 시쳇말로 나타내자면 “(씩은) 흥어 좃이다”²⁾[일부에는 이를 가리켜 일부에서는 ‘호남혐오’라는 단어를 쓰면서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것 같다]이라고 한다. 다들 아시겠지만 흥어(魷魚)는 지역을 나타내는 것이고 ‘좃’은 성적인 표현이다. 본 연구자는 전라도 사람이기에 흥어이고 그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좃(凸)’인 것이다(참고로 나는 아직까지 한번도 SNS를 가

1) 다음을 참조하라. “시나고그의 예배를 구성하는 내용의 일부인 유대교의 12기원(birkat haminim)의 개정판에는 ‘이단’으로서 나사렛 인(기독교도[유대인-기독교인, 노슬림 nosrim])이 특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숨은 기독교인’으로서 시나고그 안에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회당 추방’을 둘러싼 기술에서 그러한 당시의 상황을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요9:22; 12:42) 유대인 기독교도의 입장에서 그것은 다수파에 의한 종교적·사회적인 차별과 보이콧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실상 그들은 유대교 회당 밖으로 내쫓겨 독자적인 집회활동을 할 것을 강요당했습니다.”(Miyata, 2013: 52-53).

2) 그대로 인터넷 카페 글을 옮긴다.

김대중과 북한 내통편지 물증 나왔다!!!!!! 2014.09.13

정사일베로524 민주화-17 페이스북에서 공유하기! 트위터에서 공유하기! 미투데이에서...15:04:48

(*107.*56) 흥어좃김머중 +2 직과 내통한 빨갱이를 대통령으로...

cafe.daum.net/jws2137/TTy1/162 스마일 닷컴 | 댓글 1

http://cafe.daum.net/jws2137/TTy1/162?q=%C0%CF%BA%A3%BD%E2%00%BA%C8%AB%BE%EE%1%BF

입도 그래서 그것을 해 본적도 없다).

영지주의에 대한 반발, <유다복음>에 대한 강한 저항은 가롯 유다에서도 그가 '유대인[民族]이라는 것과 더불어 성[性]과 관련된 비난으로 발전하게 되었을 것이다. 성(性)과 관련하여 가롯 유다에 대한 비난은 파피아스 주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피터 스탠포드(Peter Stanford)는 적고 있다.

“[히엘라폴리스(오늘날 터키)의 주교였던] 파피아스는 또한 처음으로 유다를 성적 결핍자로 기록했다. 그리고 성적 결핍은 이후 특히 기독교가 성 아우구스티누스(354-430)의 영향력 밑으로 들어가면서부터 배신자 유다의 중요한 특징이 된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성과 관련된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다. 유다를 성적 결핍자로 단정하면, 성 자체를 최악 시할 수 있었다. ‘그(유다)의 생식기는 너무나 비대해졌고, 다른 누구의 것보다 더 추악하게 변했다’”(Stanford, 2016: 151).

심지어는 가롯 유다를 근친상간(近親相姦)을 저지른 사람으로까지 묘사되기도 한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말도 안 되는. “1260년경 이탈리아 제노바의 대주교 야고부스 데 보라지네(Jacobus de Voragine)가 저술한 『황금전설』에는 유다가 아버지를 죽이고 자신의 어머니와 결혼했다고 묘사되어 있다고 한다. 중세 화가들은 그를 백합과 같은 백인 예수와 비교되는 전형적인 유대인의 모습으로 묘사했다고 한다(배철현, 2015: 162).

참고(參考)로, 유다를 악마화는 것과 비슷한 경우를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십자군 전쟁 당시 이슬람교에서 예언자로 생각하는 무함마드(Muhammad)에 대한 표현과 이해에서, 또는 프랑스 왕정(ancient regime)에서 프랑스 혁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시점에서 마리-앙투아네트(Joséphe Jeanne Marie-Antoinette)에 대한 표현과 이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2) 악마화를 가속화하도록 만든 환경

신을 배신한 가롯 유다를, 신을 배신한 유대인으로, 또 근친상간을 비롯해 모든 잘못을 행한 유다와 유대인으로 만든 환경은 무엇일까? 이는 중세 유럽에서 마녀사냥이 확대되어지는 환경과 매우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중세 때 유대인 또한 마녀로 몰려 마녀사냥의 중요한 대상이었기 때문이기도 한다. 본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잘못된 성경해석의 생산과 환원주의적 이해, 정치적 이해관계, 물질에 대한 욕망 등이 가롯 유다와 유대인들에 대해서 악마화하는 것을 가속화하도록 하는 환경으로 지목하려고 한다.

(1) 잘못된 성경해석의 생산과 환원주의적 이해

유대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는 성경해석이 지속적으로 생산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그것을 듣는 자들도 분별하지 못하고 매우 환원주의적 입장에서 이해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교황을 비롯해서 성직자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이들은 성경해석에 있어서 독점권을 행사했다. 독점권을 지닌 이들은 자신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해에 이익을 되는 방향으로 잘못된 성경해석을 생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것을 듣는 이들은 상대적으로 무지(無智)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 권위에 놀리고, 또 이는 것이 짧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해석에 대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했기에 잘못된 가르침을 그대로 이해하였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사람들에게서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저항을 볼 수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가르쳐준 그

대로 수용하였을 것이다. 이는 중세 때 성화(聖畵, icon)가 그려지고, 성유물(聖遺物)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더 나아가 성당과 같은 건물[성당 안쪽에 壁畵]이 많이 지어지는 것과 일부 관계가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문해력(文解力, literacy)이 매우 낮았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는 이들에게 문자를 통한 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바로 이러한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교육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

참고로 심지어는 유대인의 악마화에 대한 책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돌리려고 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편 프랭크 로프스키는 6세기 성경의 외전을 언급한다. 그 외전에서 예수는 유대인 아이들을 염소로 바꿔놓은 뒤에 이 불행한 아이들의 어머니에게 선언한다. ‘이스라엘의 자식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흑인들보다 나은 게 없도다’”(Lovsky, 1970: 351; Delacampagne, 2013: 173 재인용). 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었다. “유대인의 왕 예수(Jesus Rex Judeorum, 마27:37).”는 예수님의 죄패의 내용이었다.

(2) 정치적 이해관계

악마화를 가속하게 하였던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당시 독일에서 페스트에 대한 종교적인 치유책으로 나온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채찍질 고행단(Flagellants)의 순례였다고 한다. 그런데 이 운동이 당시 일반 대중들의 인기를 끌면서 기존 교회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종교적 행위가 일부 정치적 성질을 지녔고 일부는 정치적 주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들의 주장에 당시 이단으로 주목받던 세력까지 합세해 가톨릭교회의 권위에 대해 저항하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된 것이다.

“... 이 운동이 이러한 측면에서 인기를 끌게 되면서 교회와의 충돌은 불가피해졌다. 대장들이 죄의 사면을 선언한 것은 교회의 가장 성스럽고도 수지가 맞는 특권을 침해하는 것이었다. 의견이 다르거나 배교한 성직자들은 이 운동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면서 특히 이전 상관들에게 즐거이 저항했다. 독일 고행단은 앞장서서 가톨릭교회의 위계를 부인했으며 성찬의 성례를 비웃고 존중하지 않았다. 고행단이 종교 의식을 방해하거나 교회에서 사제를 몰아내고 교회 재산을 약탈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외의 이단(롤러드 Lollards, 베그하트 Beghards, 켈리트파 Cellites)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대의명분을 내걸고 가톨릭 교회의 권위에 맞섰다.”(Ziegler, 2003: 119).

이러한 사태에서 독일의 종교와 정치 지도층이 생각한 것이 앞서 김진호 선생이 지적한 것이 악마화된 타자였던 것이다. 당시 ‘위기의 극면’을 타자의 악마화를 통해서 돌파하려고 지배계층들은 생각했던 것이다.³⁾ 그 악마화의 후보로 독일에서는 유대인 공동체가 지목되었던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뇌물을 받은 나병환자이 우물에 독을 풀었으며 그러한 것을 돈을 주고 행하도록 한 유대인들은 그라나다 왕에게서 돈을 받고 나병환자에게 그러한 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것이다(Ziegler, 2003: 124).

(3) 물질에 대한 지배세력의 욕망

세 번째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당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금전(物質)에 대한 지배세력의 욕망 또한 악마화를 가속화(加速化) 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했었다. 항상 그들의 부유함은 지배계층의 눈에 들어와 있었다. 당시 지배계층이 돈 많은 유대인들에게 즐겨 사용한 시나리오인 이런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들을 악마화해서 죽이거나 추방하는 것

3) 참고로 1992년 LA폭동(4·29폭동)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킹(Rodney Glen King)의 백인 폭행경찰의 무죄로 인해 발생한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언론들이 두순자 사건(1991년)에다 그 초점을 맞추으로써 한인들에게 피해가 가계급 하였기 때문이다.

이다. 물론 남은 재산도 모두 그들의 것이 되었다. 장-미셸 살망(Jean-Michel Sallmann)은 마녀재판에 벌어진 일을 다음과 같이 말해주고 있다. 유대인에 대한 악마화의 최종 목표는 뭐니 뭐니 해도 바로 머니(Money)였던 것이다.

“유대인 역시 동일한 죄목[마녀]으로 심판받고 했는데, 번번이 추방당하거나 사유재산 몰수를 선고받았던 그들은 왕실금고를 넉넉하게 만드는 데 일조했다. 사바스(Sabbath, 본디 유대교 안식일로서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가리키나 중세 유럽에서 마법의 집회를 의미-역주)라는 용어-또는 프랑스어 문헌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동의어, 시나고그(Synagogue)-가 반유대주의적 종교재판에서 비롯되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프랑스 국왕은 유대교에 반(反)하는 이 전형적인 방식을 통치기술로 사용함으로써 그 효율성과 극단적인 부패성을 잘 보여준다. 이 기술을 동원하여 필리프 르벨과 기욤 드 노가레는, 악마와 교통한다는 죄목을 뒤집어씌워 유대교 주요 지도자를 제거할 수 있었다. 그들은 화형장에서 재가 되었고 조직은 와해되었으며, 거대한 부(富)는 몰수되어 거의 빈털터리가 되어가던 왕실의 금고를 채우는 데 쓰였다.”(Sallmann, 1995: 25).

4 脫歷史化: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과 해석독점의 붕괴, 그리고 오픈텍스트(Open Text)가 되어버린 가롯 유다 이야기

타자가 되어버린 가롯 유다는 악마가 되어버렸다. ‘가롯 유다=악마’, ‘유대인=악마’ 어디에선가 패러디한 것처럼 느껴지는 다음의 문장은 악마화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예수라고 쓰고 기독교라고 읽는다면, 유다라고 쓰고 유대인이라고 읽는 것이다.”(Stanford, 2016: 120). 가롯 유다만 악마화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유대인도 동시[都賣金으로]에 악마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흥어를 좋아하는 전라도 사람만 흥어가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전라도 사람들이 ‘흥어가 되어버린 것처럼, 아니 전라도에 출생 신고한 사람은 모두 ‘흥어가 되어버린 것처럼 말이다. 그의 삶의 대부분이 전라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라도가 호적상의 출생지라는 것만으로도 말이다. 그들은 역사 속에서 희생양이 되었다.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 집권기인 독일의 나치 치하에서 저질러졌던 그 악명 높은 홀로코스트였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움켜쥐자, 독일 교실에서는 이런 구호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유대인 유다가 독일인 예수를 배신해서 유대인에게 팔아넘겼다.’”(Mills, 2014.; Stanford, 2016: 322 재인용).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죄 없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서 재(trash)로 변해버렸다.

(1)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

전쟁이 끝나고 극악한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 일기 시작한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를 가롯 유다에 대한 악마화에서 찾았던 것 같다. 만약 가롯 유다에 대한 악마화를 통해서 홀로코스트가 발생하였다면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은 가롯 유다를 악마화가 되기 전의 원래의 위치에 가져다 놓아야만 한다. 그렇다면 정경이 말해주고 있는 가롯 유다에게로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해결책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찾았다. 그들은 정경보다는 <유다복음>의 가롯 유다에 눈을 돌린 것이다. <유다복음>의 가롯 유다로 잘못 회귀한 것이다. 이는 정통기독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가롯 유다에 대한 탈역사화[脫聖經化]의 과정이었던 것이다. 홀로코스트에 대한 반성이 유다에 대한 탈역사화를 도모한 것이다. 이는 에이프닐 드코닉(April De Conick) 교수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유다복음 번역자들의 결과물을 큰 비판 없이 받아들인 이유가 유다를 영웅으로 묘사함으로써 제2차 세계개전의 비극에 대한 집단적 상처를 치유해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DeConick, 2009; Stanford, 2016: 375 재인용)

(2) 해석독점의 붕괴와 이제는 오픈텍스트가 되어버린 가롯 유다 이야기

기독교의 위선이라고 할까 아니면 기독교의 과오라고 할까? 역사 속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졌던 오류들을 세인들이 잘 알게 되었다. 테러, 전쟁, 차별에서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역사적 기록들이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기독교에 대한 거부와 부정적 정서를 세인들에게 그대로 전달했다. 지금은 또한 과거처럼 교황이 중심이 되어서 권력을 장악하는 세상이 끝났다. 교회 안에서도 과거처럼 해석에 있어서 독점적으로 행사했었던 시대가 끝났다. 말 그대로 포스트모던 사회가 되어버렸고, 권력의 독점도, 해석의 독점도 거의 종말을 고하였던 것이다. 이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게 된 것이다. 가롯 유다에 대한 성경 이야기는 탈역사화와 더불어, 하나의 오픈텍스트가 되어버린 것이다. 누구나 열려있는 텍스트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자신의 관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에 맞게 가롯 유다를 읽을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이다.(아쉽게도). 정통 기독교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가롯 유다에 대한 더 깊은 탈역사화의 과정의 진행인 것이다. 과거와의 약간의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내놓고 다수의 사람들이 탈역사화의 작업을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탈역사화된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 상태로 시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피터 스탠포드(Peter Stanford)의 말처럼 다양한 유형의 가롯 유다가 등장하였고, 앞으로 등장하고 또 등장할 것이다. 간혹은 가롯 유다의 이름을 숨기도 때로는 다른 이름으로도 나타날 것이다.

그렇게 2,000년 역사 동안 수많은 유다가 등장했다. 돈주머니를 움켜쥔 금융가 유다도 있었고, 예수에게 격정적으로 입을 맞추는 동성애자 유다도 있었으며, 공처가 유다도, 섹스중독자 유다도 있었다. 타락한 주교 유다, 예수난극에 등장하는 어릿광대 유다, 변화를 거부하는 수구주의자 유다, 지상낙원을 추구하는 혁명가 유다도 있었다. 이렇듯 과거에도 수많은 유다가 있었고, 현재에도 또 다른 유다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Stanford, 2016: 373).

신학의 영역에서도 정경이 말해준 가롯 유다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유다복음>과 그 속에 있는 유다의 역사성과 전통성을 주장하는 연구자들이 있는데, 비록 그렇게까지는 주장하지는 않더라도 <유다복음>의 존재를 통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전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을 정도인데, 다른 영역인 문학과 예술계에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가롯 유다에 대한 탈역사화가 이루어질지는 앞으로 볼 보듯 뻔하다. 과거 댄 브라운(Dan Brown)의 『다빈치 코드』(Da Vinci Code)는 어쩌면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III 나아가기

1 요약하기

다양한 가롯 유다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 본 연구자는 개인적으로 상상의 날개를 폈다. 성경이 가르쳐준 다른 가롯 유다가 존재했다는 것, 그 때문에 초기 기독교는 구별하기가 필요했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타자화’한 것이다[他者化]. 그런데 상대방의 세력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러한 위기상황을 넘기 위해서는 타자화를 넘어서 극단적 타자화의 행태인 악마화의 과정으로 전개된 것이

대[他者化의 惡用=惡魔化]. 물론 여기에는 잘못된 성경해석과 적용, 그리고 정치적이며 인간적인 이해관계가 작용했을 것이다(극단적 악마화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원치 않으시는 것이다). 이 악마화의 정점은 바로 홀로코스트였다. 가롯 유다에 대한 악마화로 인해 홀로코스트가 발생했다면 가롯 유다의 악마화 이전으로 되돌아가야만 했다. 다시 정경으로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전혀 다른 전통의 <유다복음>의 가롯 유다로 돌아갔다. 이는 정통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 탈역사화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脫歷史化=脫聖經化]. 포스트모던 시대에는 절대적인 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해석의 독점은 붕괴되었다. 가롯 유다의 이야기는 이제는 오픈텍스트가 되었다. 가롯 유다는 문학과 예술계 심지어 신학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더욱 더 탈역사화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다양한 유다가 존재하게 된 것이다. 성경의 유다 가롯과 전혀 다른 가롯 유다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정체성을 위해서는 타자화(일종의 '구별하기와 '경계 짓기' 정도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극단화하면서 악마화 하려는 유혹으로부터는 자유해야 할 것이다. 악마화는 극단적인 환원주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惡魔化와 같은 極端的의 환원主義에서 벗어나기]. 다시 말하지만 극단적 악마화는 주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삶의 태도이기 때문이다.

2 CUI BONO: 진리 흔들기 그 누구의 이익인가?

<유다복음>의 배후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유다복음>은 단순히 가롯 유다는 배신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 단순히 가롯 유다가 배신자가 아니라는 것만을 유다복음에 내포하고 있다면 그렇게 격한 반응[惡魔化]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영지주의 문서인 유다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성을 부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었다. 유다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죽음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는 <유다복음>이 영지주의 문서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가능한 해석이다). 부활절을 맞아서 유다복음이 공개된 것에는 '구속 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왜곡하려고 하는 의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김동수, 2007: 113). 또한 유다복음의 돌풍에는 김동수(2007) 교수가 지적한데로 상업적 목적이 깊이 배어 있다는 점이다(김동수, 2007: 112-113). 그러므로 어느 현상을 받아들일 때 걸모습보다는 그 깊이 있는 내면의 현상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Cui Bono? 누가 이익인가? 에 대한 비판적 인식 또한 필요하다 하겠다.